



## ■ 금주의 프로야구 최대 이슈

## 삼성 '4강 축포' 언제 쏠까?

SK, 21일 한국시리즈행 확정

들러리 신세 KIA, 흠서 3경기

(22일 현재)						
순위	팀	승	패	승률	개인차	연속
1	SK	77	37	0.675	0.0	6승
2	두산	66	49	0.574	11.5	3승
3	롯데	65	52	0.556	13.5	4패
4	삼성	62	57	0.521	17.5	2승
5	한화	61	61	0.500	20.0	1승
6	KIA	53	66	0.445	26.5	2패
7	히어로즈	43	71	0.377	34.0	2패
8	LG	42	76	0.356	37.0	2패

21일 SK 와이번스가 2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직행을 티켓을 확보하면서 프로야구 '가을잔치' 초대 손님의 얼굴이 거의 드러났다. 이번 주 프로야구 최대 이슈는 삼성의 4위 확정 여부다.

4위 삼성과 5위 한화의 움직임에 따라 빠르면 25일 2008 시즌 정상에 도전할 4강 틀이 완성될 전망이다.

여유가 있는 팀은 삼성이다. 22일 현재 2.5개임차로 한화를 따돌리고 4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은 지난 18일 KIA를 상대로 14-2 대승을 거둔데 이어 21일 LG와의 연장 경기에서도 5-3으로 승리하며 귀중한 2승을 챙겼다.

앞으로 7경기를 남겨둔 삼성은 한화의 경기 결과에 따라 이번 주 최대 3승, 최소 1승이라는 경우의 수로 4강을 확정짓게 된다.

잔여경기가 4경기 밖에 남지 않은 한화는 23일 문학으로 건너가 SK를 상대한 뒤 27일 사직에서 롯데와 맞붙는다.

다음주 남은 2경기에서 전승을 거둔다고 가정할 경우, 한화가 이번주 예정된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챙기면 삼성은 3승을 거두어야 4강 티켓을 확보하게 된다.

한화가 이번주 1승1패를 한다면 2승이 삼성 4강행을 위한 매직 넘버가 되고, 한화가 2패를 당한다면 삼성은 단 1승만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짓게 된다.

삼성은 24일부터 롯데와의 홈 2연전에 이어 잠실로 올라가 두산과 원정 3연전을 치르게 된다.

23일 한화가 SK전에서 패하고, 삼성이 24일부터 시작되는 롯데와의 2연전에서



“KS 직행이다”

프로야구 SK와이번스 선수단이 지난 21일 인천 문학야구장에서 열린 KIA전에서 승리, 페넌트레이스 우승을 확정지은 뒤 모자를 하늘 높이 던지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두 승리한다면 빠르면 25일 4강을 자축하는 샴페인을 터트릴 수도 있다.

반드시 전승 행진을 해야 하는 한화와 상대팀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는 삼성의 마지막 4강 타이틀을 싸운은 이번주 프로야구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한편 21일 SK에게 시즌 13번째 승을 헌납하며 한국 시리즈 직행 치안의 들러리가 됐던 KIA는 지난 11일 이후 거의 2주 만에 홈 3경기를 치른다.

23일 롯데를 광주로 불러들인 KIA는 26일과 27일에는 히어로즈, LG와의 시즌 마지막 18차전을 갖는다. 일요일인 28일

에는 사직으로 건너가 을 시즌 롯데와의 모든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된다.

팬들의 관심사는 에이스 윤석민의 등판여부다. 피로누적으로 지난 14일 2군으로 내려갔던 윤석민은 26일 히어로즈전 부터는 등판이 가능하다.

21일 김광현(SK)이 KIA를 상대로 15

번째 승을 신고하는 바람에 다음왕 타이틀을 놓치게 된 윤석민(13승)은 평균자책점 1위 고수를 위한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민은 22일 현재 2.44의 평균자책점으로 2.55의 2위 김광현에게 근소한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angju.co.kr

## 앤서니 김, 가르시아에 5홀 차 완승

## 美, 라이더컵 되찾았다

## 미국-유럽 골프 대항전

미국 골프가 자존심을 되찾았다.

미국은 22일(한국시간) 웨인카주 루이빌의 벨힐러 골프장에서 싱글매치플레이로 열린 미국-유럽 골프 대항전 라이더컵 최종 라운드에서 유럽을 꺾고 우승했다.

1999년 대회 때 유럽을 이긴 뒤 2002년, 2004년, 2006년 대회에서 내리 3연패를 당했던 미국은 안방에서 명예를 되찾는데 성공했다.

미국은 싱글매치플레이 12경기에서 7승1

## 한전 배구단 명칭

## '수원 KEPCO 45'

올해부터 프로구단으로 탈바꿈한 한국전력(사장 김상수) 배구단이 팀 이름을 '수원 KEPCO 45'(포티파이브)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프로구단 활동에 돌입했다.

한전은 22일 직원 공모와 외부전문가 심사를 통해 구단명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단명 '수원 KEPCO 45'는 KEPCO(한전) 배구단이 1945년 창단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KEPCO 배구단의 오랜 전통과 함께 미래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수원은 연고지를 의미한다.

한전은 기존 팀명에 익숙한 팬들을 위해 '수원 한전 45'도 팀명으로 함께 사용한다. 외국 프로스포츠 구단 이름 가운데에는 미국프로농구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76ers) 처럼 숫자가 구단명에 들어간 경우가 종종 있지만 한국에서는 처음이다.

▲주제 대학배구(12:50·SBS스포츠)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히로시마>(14:00·MBC ESPN)

▲프로야구 <히어로즈: 두산>(18:20·Xports), <한화: SK>(18:30·MBC ESPN), <롯데: 기아>(18:30·KBSN SPORTS)



## “승염 전설의 훔런 쳤다”…日 언론 극찬

일본 언론은 22일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사진)이 비거리 135m짜리 대형 3점포를 터뜨리며 요미우리를 마침내 센트럴리그 공동 1위로 올려 놓은 장면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요미우리 계열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호치'는 '이승엽이 전설의 훔런을 때렸다'면서 지난 21일 경기에서 0-2로 끌려가던 5회 선두 타자로 나와 좌중간 2루타로 공격의 물꼬를 뚫고 타자일순에 돌아온 두 번째 타석에서 3점포를 쏘이 올리는 등 '이승엽이 시작하고 이승엽이 끝냈다'고 아시아 거

포의 맹활약을 대서특필했다.

이 신문은 훔런을 때리고도 쑤처럼 감정을 나타내지 않던 이승엽이 이날은 웃음을 띠었다면서 더 그아웃으로 들어오던 이승엽이 4번 암нес스 라미레스와 힘차게 깨안는 등 기쁨을 만끽했다고 전했다.

'산케이 스포츠'는 이승엽이 한신의 숨통을 끊어놓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고 평했고 '스포츠닛폰'은 '오늘 승리는 이승엽 덕분'이라며 고마워 한 선발투수 우에 하라 고지의 소감을 심기도 했다.



## 추신수 4경기 연속 안타…타율 0.310

미국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외야수 추신수(26·사진)가 4경기 연속 안타와 2득점을 기록하며 팀 6연승에 기여했다.

추신수는 22일(한국시간)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홈경기에 우익수 겸 3번 타자로 선발 출장, 4타수 1안타 2득점을 기록했다. 안타는 1개에 그쳤고 타점도 없었지만 득점은 2개나 올려 알토란같은 활약을 펼쳤다.

1회 말 첫 타석에서 땅볼로 출루한 뒤 상대 투수의 폭투와 후속타로 훔을 밟아 득점

을 올린 추신수는 2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1사 1,2루에서 헛스윙 아웃으로 물러나 아쉬움을 남겼다.

추신수는 그러나 세 번째 타석에서는 좌전 안타에 이어 투수의 경제구 실책으로 2루까지 진루한 뒤 후속 빅터 마르티네스의 2루타 때 훔으로 들어와 2득점째를 올렸다.

5회 볼넷으로 출루한 추신수는 7회에는 뜬공 아웃으로 물러났다. 추신수의 시즌 평균타율은 0.310(중전 0.313)으로 조금 낮아졌다. 클리블랜드는 디트로이트에 10-5로 승리하며 3연전을 모두 쓸어담았다.